

토론회 식순 |

- ◆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10:00~12:0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소변경 진행)

◇ 제1부 개회식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개회 및 국민의례	-
10:05~10:20 (15분)	축사 및 인사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갑)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15~10:20	기념촬영	토론회 참석자 단체촬영

◇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시 간	내 용
10:20~10:50 (35분)	<발제 1>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이 미치는 동물복지 문제 Dr. Naomi Rose (세계포경위원회 과학전문위원) - 순차통역 : 조약골 (햇핑크돌핀스 대표)
10:50~11:10 (20분)	<발제 2> 수족관 고래류 법령/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11:00~11:52 (42분)	<지정토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황현진 (햇핑크돌핀스 대표)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이종하 (경남도청 해양수산과장)
11:52~12:10	상호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12:10~	폐회

인사말

맹성규 국회의원(농해수위)	05
양이원영 국회의원(환노위)	07
강은미 국회의원(환노위)	09

발제

- ▶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이 미치는 동물복지 문제
 Dr. Naomi Rose 세계포경위원회 과학전문위원 13
 - 순차통역 :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
- ▶ 수족관 고래류 법령/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29

지정 토론

좌장

이 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토론자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41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	45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51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	57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61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65
이종하 경남도청 해양수산과장	69

| 인사말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먼저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코로나 19로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발제 및 토론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님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거제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거제씨월드’에서 고래를 타는 라이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동물 학대로 문제제기를 한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5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고래 체험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하셨고, 7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거제씨월드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물학대라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관계 부처는 법적 미비로 어떠한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으며, 거제씨월드는 동물학대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고래류 체험프로그램들을

계속 정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고래류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오미 로즈 박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주시겠지만, 거제씨월드에서 사육되고 있는 벨루가는 야생에서 주로 북극해와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를 오가며 보통 수심 20~50m 내에서 활동하다가, 깊게 잠수할 때는 700m까지 내려가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광활한 바다를 헤엄치던 벨루가가 고작 수심 6~7m 수조 안에 갇혀 처음 보는 사람의 손에 문질러지고 자기 몸 만 한 사람이 지느러미를 잡고 올라타는 체험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동물학대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양포유류를 포함해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국제적인 동물 보호 기류에 따라 해양포유류에 대한 포획과 전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족관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오늘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 담당자를 포함해 저명한 해양포유류 생태 전문가인 나오미 로즈 박사와 고래류 생태연구와 보전에 앞장서고 계신 동물단체 활동가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향후 제안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방향을 비롯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 및 적용 기준 마련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제가 국회 일정으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상세히 살펴 동물원·수족관 운영에 해양포유류의 생태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자 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양이원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옷을 여미며 문득 올려본 파란 하늘이 잠시 마나 위안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참 송구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제돌이가 쇼를 하다가 바다로 돌아간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마리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남아 인간들의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수입된 고래 절반인 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최근 7월에는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벨루가(흰고래),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고래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래를 체험행사라는 미명아래 쇼에 동원하는 행위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거 볼거리가 없던 시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고래는 하나의 전시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 지구별에서 사는 생명체입니다. 전시·관람 문화를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제씨월드 수족관에서 벨루가(흰고래)를 타는 체험행사를 진행해 동물 학대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원·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져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제도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인사말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함께 공동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님과 양의원영의원님,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나오미로즈 전문위원님과 동물권카라 전진경이사님을 비롯해 좌장을 맡아주시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항교수님, 지정토론자 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20.6)까지 전국 수족관의 폐사된 해양포유류(고래류)는 모두 26마리입니다. 특히 거제씨월드의 경우는 최근 5년간 '15년 2건, '16년 3건, '17년 1건, '18년 1건, '19년 2건으로 총 9마리가 폐사되어 전국 수족관 중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벨루가와 돌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 등 돌고래쇼를 운영하며 동물을 학대한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인 『동물원수족관법』은 쇼 체험 중지 등 동물학대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서식환경 기준도 미약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저는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 △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임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와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고래류 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당과 저 역시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인공구조 시설이 아닌 동물이 자연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이 미치는 동물복지 문제

- Dr. Naomi Rose (세계포경위원회 과학전문위원)
- 순차통역 : 조약골 (햇핑크돌핀스 대표)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이 미치는 동물복지 문제

Dr. Naomi Rose (세계포경위원회 과학전문위원)
- 순차통역 : 조약골 (햇핑크돌핀스 대표)

Beneath the Surface: The Impact of Captivity on Cetaceans

Naomi A. Rose, Ph. D.
Animal Welfare Institute

September 2020





Cetacean Intelligence

The encephalization quotient, or EQ, is the ratio of brain size to body mass and is considered one measure of cognitive capacity. Most animals would be expected to have an EQ of 1 (their brain is the expected size for their body mass). However, dolphins have a much larger brain than would be expected for their size, with EQs ranging from 3.24 to 4.56. In comparison humans have an estimated EQ of 7.0, and the human ancestor *Homo habilis* had an EQ of 4.4.

Jerison, R. J. 1973. *Evolution of the Brain and Intelligence* (New York, New York: Academic Press).

FREE-RANGING VS. CAPTIVE CETACEANS

► Space

Beluga Whales

Belugas regularly travel 10–20 km per day and can cover 60–70 km in 24 hours.

Hauser, D. D. W., Laidra, K. L., Suydam, R. S., and Richard, P. R. 2014. Population-specific home ranges and migration timing of Pacific Arctic beluga whales (*Delphinapterus leucas*). *Polar Biol.* 37: 1171–1183

A recent study tracked belugas diving to 900 m and found they dove in excess of 600 m at least once daily. They commonly dive between 10 and 50 m.

Hauser, D. D. W., Laidra, K. L., Parker-Stetter, S. L., Horne, J. K., Suydam, and R. S., Richard, P. R. 2015. Regional diving behavior of Pacific Arctic beluga whales *Delphinapterus leucas* and possible associations with prey. *Mar. Ecol-Prog. Ser.* 531: 246–264

Bottlenose Dolphins

The *smallest* core range for a single bottlenose dolphin in one study was 0.6 km², which equates to 600,00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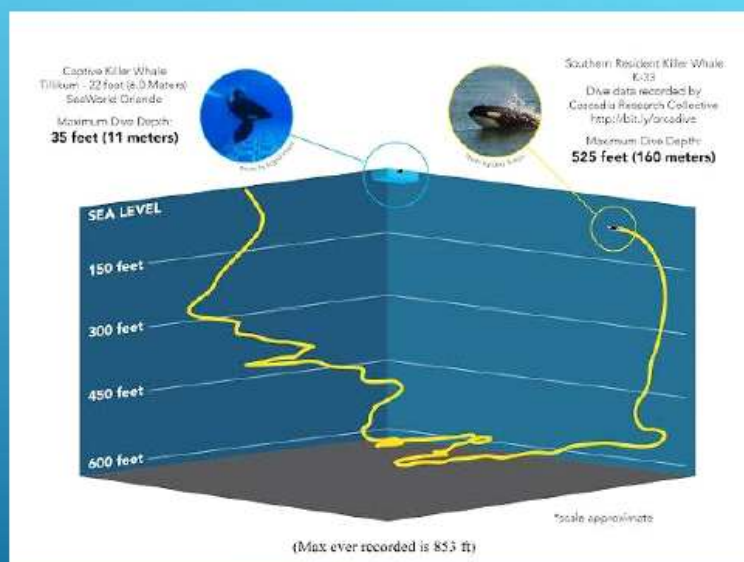
Gubbins, C. 2002. Use of home ranges by resident bottlenose dolphins (*Tursiops truncatus*) in a South Carolina estuary. *J. Mamm.* 83: 178-187.

Bottlenose dolphins range far more widely (in the range of tens of kilometers per day) and dive more deeply (up to 450 m) than was generally supposed 30 years ago.

Klatsky, L. J., Wells, R. S., and Sweeney, J. C. 2007. Offshore bottlenose dolphins (*Tursiops truncatus*): Movement and dive behavior near the Bermuda pedestal. *J. Mamm.* 88: 59-66.

Mate, B. R., Rossbach, K. A., Nieuwkerk, S. L., Wells, R. S., Irvine, A. B., Scott, M. D., and Read, A. J. 1995. Satellite-monitored movements and dive behavior of a bottlenose dolphin (*Tursiops truncatus*) in Tampa Bay. *Mar. Mamm. Sci.* 11: 452-463.

Large animals — small enclosures



Typical tanks are 1/10,000th of a percent the size of natural home range



FREE-RANGING VS. CAPTIVE CETACEANS

- ▶ Space
- ▶ Social groupings





FREE-RANGING VS. CAPTIVE CETACEANS

- ▶ Space
- ▶ Social groupings
- ▶ Environmental quality and complexity





FREE-RANGING VS. CAPTIVE CETACEANS

- ▶ Space
- ▶ Social groupings
- ▶ Environmental quality and complexity
- ▶ Behavioral restrictions, *e.g.*, predator-prey relationships



Orcas - top marine predator

Hunting in Patagonia and Alaska



Soliciting fish in captivity



Dolphins fish herding

Dolphins stationed



Capture from the wild

Present-day captures:

- Drive fisheries in Taiji, Japan (various dolphin species)
- Cuba (bottlenose dolphins)
- Sea of Okhotsk, Russia (belugas, orcas)



Captures in 2018



The Future

End breeding.

End captures.

End live trade.

Improve facilities if possible.

Sanctuaries where possible.

Release where possible.

Questions?

naomi@awionline.org

 : From the Dolphin' s Point of View

 : @frdolphinsPOV



**Animal Welfare
Institute**

www.awionline.org

발제 |

수족관 고래류 법령/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수족관 고래류 법령/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동물권행동 **카라**

수족관 고래류 법령/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020. 09. 22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목차

01 / 현황

02 / 문제점

03 / 개선 방향

1 | 현황

수족관 돌고래 “먼바다 고향 잊은 채 오늘도 인간들 위해 쇼 합니다“

- 전국 22개 수족관 중 7곳에서 고래류 30마리(2020.9 현재) 전시
- ‘2013’ 제돌이 등 불법 포획 고래류 7개체 방류

※ 방류 가능여부, 바다쉼터 설치 가능성,
억류 고래류의 보호 VS. 소유권

수족관	전시 현황
롯데월드 어쿠아리움	흰고래/흰부기 1
웅남포 고래박물관	큰고래 4
아쿠아플라넷 어수	큰고래 2
가리비월드	큰고래 7, 흰고래 4
해사박물관	남방큰돌고래 1, 큰고래 3
마린파크	큰고래 4
아쿠아플라넷 제주	큰고래 4

개체명	포획 시기	방류 시기
삼살이	2008년 8월 13일	2013년 8월 22일
순살이	2008년 8월 23일	2013년 7월 18일
재살이	2010년 5월 1일	2013년 7월 18일
복살이	2008년 5월 1일	2015년 7월 6일
석살이	2008년 6월 25일	2015년 7월 6일
광살이	1997년	2017년 7월 18일
다도	1988년	2017년 7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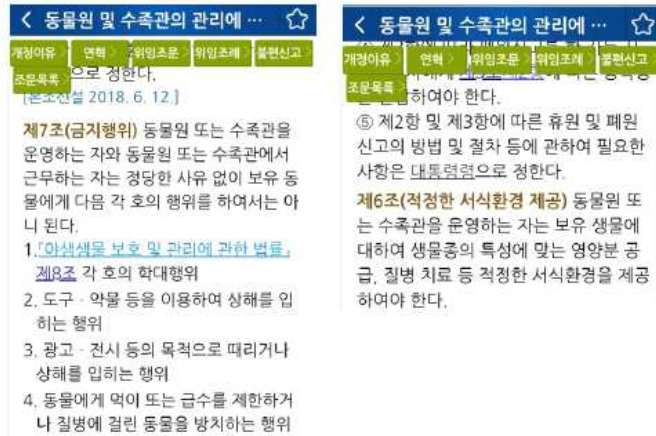
9.12 국민일보/ 신준섭

1 | 현황

동물원 수족관 고래류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록요건, 등록절차, 안전관리, 운영, 사육면적 등 행정/ 운영 중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면적 규정

※ 동물학대, 사육부적합동물 고시 및 사육 금지 vs. 쇼체험



1 | 현황

동물원 법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028
------	------

발의연월일 : 2013. 9. 27.

발 의 자 : 장하나 · 우윤근 · 배기운
 박수현 · 은수미 · 추미애
 최재성 · 홍종하 · 백군기
 신계륜 · 정성호 · 김광진
 전해철 · 한명숙 · 홍영표
 김경협 · 정진후 · 강동원
 김계남 · 심상정 · 최민희
 박원석 의원(22인)

2013년 동물원법 최초 의안, 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4년 4월 - 식물원까지 통합한 환경부 안 제시
 2016년 5월 - 국회 환경노동위 대안 제시

1 | 현황

현행 동물원법과 고래류 보호·복지

- “광고, 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처벌
- 동물원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서 동물학대 관련 조항 초보적 수용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의무 명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 야생동물 사육 면적 규정 없음



수족관 명	고래류 전시 현황	수조 규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흰고래 1마리	1,224톤(400㎡ 수심7m)
장생포고래박물관	큰돌고래 4마리	1,146톤(247.5㎡ 수심 5.2m) 보조물 : 1,456톤(378㎡ 수심 4m)
아쿠아플라넷 여수	흰고래 2마리	1,032톤(130㎡ 수심 7m) 치류수조 : 128톤(23㎡ 수심 5m) 재현수조 : 9,700톤(2,300㎡ 수심 6m)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7마리, 흰고래 4마리	흰고래수조 : 2,000톤(6m), 큰돌고래수조 : 9,100톤(4m)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1마리, 큰돌고래 3마리	1190.9톤(424㎡ 수심 4m) 보조물(2개) : 82.5㎡ 수심 2.5m
마린파크	큰돌고래 4마리	1,200톤(수심 5m) (실내수조: 900톤)
아쿠아플라넷 제주	큰돌고래 4마리	2,084.8톤(291㎡ 수심 6m) 보조수조 : 466톤(123.1㎡ 수심 4.2m)

2 | 문제점

다이지 피바다, 고래감옥 vs. 돌고래 체험 vs. 쇼 그리고 전시



알프스는 코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이 급저된다(허프...
huffingtonpost.kr



워싱턴포스트 | "다이지 돌고래 학살엔 우리도 책임"
hankookilbo.com



야생동물] 부끄럽지 않다. 다이지 돌고래 사냥판들, 영화...
m.post.naver.com



전후 학습,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 수입이 리소요"- 민중...
vsp.co.kr



좋은 곳으로 옮겨 들살... 코 다이지 마을의 '잔인한 고...
animalrights.kr



좋은 곳으로 옮겨 들살... 코 다이지 마을의 '잔인한 고래...
animalrights.kr

2 | 문제점

다이지 피바다, 고래감옥 vs. 돌고래 체험 vs. 쇼 그리고 전시



2 | 문제점

국내 고래류 체험 & 쇼 유형

수족관	돌고래쇼 여부
아쿠아플라넷 여수	생태설명회
장생포고래생태체험관	생태설명회
마린파크	생태설명회, 돌고래조련사체험, 돌핀스위밍
퍼시픽랜드	돌고래수중쇼, 돌고래와 악수하기
거제씨월드	야외돌고래쇼, 수중돌고래쇼, 돌핀키스&허그, 벨루가키스&허그, 돌핀 카약, 돌핀스윙, VIP 라이드 체험

2 | 문제점

고래류 폐사 현황

수족관	수입	출산	폐사	보유	폐사원인
롯데 아쿠아리움	3	-	2	1	16년 폐혈증 19년 폐혈증
장생포고래생 태체험관	8	4	8	4	09년 폐혈증 12년 돈단독감염 14년 폐렴 15년 폐렴 15년 폐혈증 쇼크사 17년 출혈성 기관지 폐렴 19년 세균성 폐혈증 20년 무권 증
거제시월드	20	-	9	11	15년 폐렴 15년 폐혈증 16년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16년 급성폐혈증 16년 폐농양 등으로 기인한 만성폐렴 및 급성 장염 진으로 인한 폐사 17년 인후부 농양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폐사 18년 과중성 황관 내 응고로 인한 급성폐혈증 19년 신장 질환(만성신부전증) 19년 신장 질환(만성신부전증)
아쿠아플라넷 여수	3		1		20년 무권 증

2 | 문제점

고래류의 수족관 내 삶 - 고래류 사육 일지 중 투약 기록

개체별 투약

비타주 3x1	865		865		865	비타주 3x1	434
락토마린 4x2	498	"	498	"	498	락토마린 4x1	431
아미벤콜로 8x2	686		686		686	아미벤콜로 4x2	434
						비만 3x2 x111	13
						공피탕 2x2x11	13
						5리터물 2x2x11	12
						극사 5mgx2x7	3

개체별 투약

비타주 3x1	871	비타주 3x1	871		871	비타주 3x1	440
락토마린 4x1	504	락토마린 4x1	504	"	504	락토마린 4x1	440
아미벤콜로 8x2	692	아미벤콜로 8x2	692		692	아미벤콜로 4x2	440
아미벤콜로 3x2	1	아미벤콜로 3x2x7	1		4	아미벤콜로 2x2x7	4
아미벤콜로 20x2	1						
세피산 3x1	1						
아미벤콜로 4x3	1						
부유사 3x2	1						

3 | 개선 방향

France bans captive breeding of dolphins and killer whales

7 May 2017



Pools for animals such as bottlenose dolphins must also be made significantly bigger under the rules

France has banned the breeding in captivity of dolphins and killer whales, in a move hailed by campaigners as a major victory.

The government also banned the keeping of all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in captivity, except for orcas and bottlenose dolphins already held.

3 | 개선 방향

1) 방류

아쿠아리움 사육실태 현장조사

(2014. 12. 2. 장하나 의원실)

□ 세부일정

- 일 시 : '14. 12. 10(수)
- 현장조사 : 롯데월드아쿠아리움→한화 씨월드
- 목 적 : 서울지역 아쿠아리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대형 포유류의 사육실태 조사
- 참 가 자 : 장하나 의원,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생물다양성과장),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전문가, 보좌진

3 | 개선 방향

1) 방류



무엇보다도 제일 인기를 끄는 건
바로 벨루아가 아닐까요?
허안 빛깔의 귀여운 벨루가는
카나리아 같은 이쁜 소리를 냅니다.

3 | 개선 방향

2) 바다쉼터

돌핀 프리 선언 수족관, 그러나..

- 서울동물원 돌핀 프리 선언 → 태지 문제 해결 안된 채 지속
- 롯데아쿠아리움의 자연 방류 결정(2021년 예정)과 진행 난항, 재포획 문제



퍼시픽랜드
태지

3 |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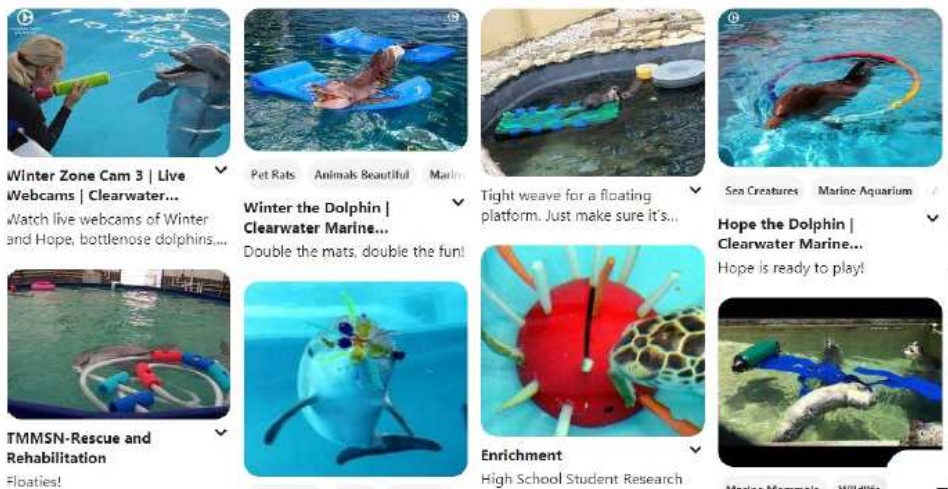
서울동물원 태지의 현 상황:

1. 태지 상태 - 토실하고 문제없어 보였으나 내부 수조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유명횃수나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적음
2. 태지의 특이점 - 내실에서 사육사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하는 행동을 2회 보임 / 다른 암컷 1마리와 어린 수컷은 동일한 행위를 한 번도 보이지 않음
3. 태지 보호 상황
 - 쇼 이외 시간: 내부 수조와 외부 수조의 수문을 열어 운동하게 해 줌
(내부 수조 수심 2.5m, 쇼장 수조 수심 4.5m)
 - 돌고래 쇼 일부에 태지 함께 공연 - 뛰어 오르기 수직으로 오르기 소리내기 등, 다만 사람과 interaction 하는 수중 쇼에서는 빠짐
 - 1일 쇼 횃수 4회 돌고래 쇼 10분 정도 (물개 원숭이 쇼 등 총 시간은 약 1시간여 정도)- 공연장의 소음이 태지가 있는 내실에 전해지는 상황
 - 수의사 없고 한달에 몇 번 촉탁 수의사가 올
 - 개체 사육 일지 작성(사육사)
4. 태지 소유권에 대한 퍼시픽 랜드의 입장
 - 서울시에서 소유권 넘겨받아도 '바다심타'가 건립되어 '태지'가 가게 된다면 보낼 것을 약속
5. 퍼시픽랜드의 향후 사업 방향
 - 쇼 이외에 수익 사업이 없는 상태라 바로 포기 곤란
 - 생태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전문가 조언 받을 것임

3 | 개선 방향

3) 환경 개선과 쇼 체험 중지 - 법 제도적 해결

- 비교육적 체험과 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조치
- 동물원 수족관 사육사들에게 행동풍부화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제공



3 | 개선 방향



3) 환경 개선과 쇼 체험 중지 - 법 제도적 해결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발전적 개선 방향 논의 제시
- 종합계획수립 시 생태학자와 연구자들의 참여 보장 및 적극적 자문 수용

☞ 장기적

- ① 한국 동물원이 종보전/교육/연구/건전한 위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제 시행과 인증제 도입 등 법적 지원 기반 마련
- ② 동물원 전시 부적합 종 지정 고시 근거 마련

☞ 단기적

- ① 금지조항의 현실화로 쇼&체험을 동물학대로 규정
- ②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실행 방안 고민

지정토론 |

토론자 - 류 종 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수족관 고래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 ①]

류 중 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 고래체험의 문제점

○ 동물권 보호의 문제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수족관에서 죽은 고래가 총 50마리를 넘음
- 고래는 좁은 수족관 공간을 감옥으로 인식
- 큰돌고래에게 필요한 최소 면적은 60만 m²로 동물원수족관법의 규정*으로는 충족할 수 없음

* 최소 용량 300m³, 또는 최소 바닥면적 200 m²로 규정

○ 해양생태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

- 해양포유류는 애완동물이 아닌 야생동물
- 고래는 반달곰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동물

○ 고래 전시를 불허하는 국가 확대

- 전 세계 10개국*에서 고래 전시를 불허가

*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헝가리, 인도, 니카라과, 슬로베니아, 스위스

-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6년 범고래보호법 제정으로 범고래의 전시와 공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류되어 있는 고래의 복지기준을 마련
- *2017년 1월부터 샌디에이고 Sea World에서 범고래 공연을 중지
- 캐나다는 모든 고래류 사육을 금지하는 S-203법안을 통과('19년 6월)

□ 개선방향

-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 및 거래를 금지하도록 동물원수족관법 즉시 개정
- 현재 억류되어 있는 고래의 방류·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서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예, 동해 문무왕릉 주변 바다)

지정토론 |

토론자 -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

생명존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고래류 전시·공연·체험·번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토론 ②]

황 현 진
핫핑크돌핀스 대표

1. 전과정이 ‘학대’인 고래류 전시·공연·체험·번식은 금지되어야 한다

수족관 업체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은 고래들을 ‘학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시·공연·체험·번식에 이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고래류 낚치, 감금, 착취의 과정은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내 고래류 감금시설 7곳에 갇혀있는 30마리에 달하는 고래들이 어디서 어떻게 잡혀왔는지,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포획과정

인간들의 무분별하고 잔인한 포획으로 인해 고래류의 야생 서식지가 파괴되고 야생 무리의 사회적 조직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발표된 ‘러시아 오호츠크해에서의 벨루가 생포 현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하고 어린 수출용 벨루가 81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34마리의 벨루가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 다이지에서서는 2016-2017 시즌에만 수족관용 고래류 235마리 포획을 위해 569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치과정

인간에게 낚치된 돌고래들은 순치과정에서 조련사들이 주는 죽은 생선을 받아먹을 때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굶겨지며 인간이 원하는 동작을 선보이도록 강요받습니다. 포획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순치과정에서의 돌고래 폐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9년 울산 남구가 고래생태체험관 개장을 위해 수입하려던 돌고래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일본 다이지 마

을 순치장 그물에 입이 걸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적합한 사육 환경

포획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감금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체와의 마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자연적 사육환경(수조크기, 소음, 수질, 수온, 조명, 먹이, 염분, 염소농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고래류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감금된 돌고래들 대부분에서 야생 돌고래에게 발견되지 않는 피부질환과 정형행동 등이 관찰되고 있으며 국내 고래류 감금시설에서 지난 10년 간 반입(수입·자체번식)된 고래류의 폐사율은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래류 감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고래류가 인위적인 시설에서 사육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류와 같이 광대한 서식 공간을 필요로 하고 높은 사회성을 지닌 동물을 좁은 수조에 가둔 채 전시·공연·체험·번식에 이용하는 이상 우리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체험·번식을 금지시키고 고래들의 야생방류와 생츄어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동물원, 수족관 대신 가상체험과 바다شط터 제공, 교육 기능 강화, 멸종위기종 연구와 보전 등의 성격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2. 고래류 전시·공연·체험·번식은 우리사회의 생명존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오락시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제씨월드를 비롯해 일부 수족관에서 고래를 타거나 수영하기, 키스하기 등의 무분별한 접촉 프로그램이 성행하는 이유는 돈을 주면 누구든 다른 존재를 함부로 만지고 밟고 올라서고 착취해도 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은 동물을 물건과 장난감처럼 이용할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윤을 위해 상식을 외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강화시킵니다.

동물에 대한 잔인함과 이기심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고래류 전시·공연·체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상화된 동물 학대와 착취를

되돌아봐야합니다. 나아가 비인간존재를 ‘오락거리’,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하고 친절과 존중으로 다른 지구공동체 구성원을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3. 정부는 고래류의 죽음을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돌고래 사육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업체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시설운동을 맡겨온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과의 접촉 프로그램 즉각 중지와 고래류 사육을 가상 체험으로 대체하고 현재 사육중인 고래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는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시, 사육 시설 관리자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수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수족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야생동물 또는 수생생물 보호 및 보전 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 수족관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규정과 세부 지침을 세우고 감독을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래류가 폐사할 때마다 별점을 매기고, 폐사가 이어지거나 별점이 높은 시설은 영업중단 나아가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합니다.

결국 커다란 방향은 동물원, 수족관이라는 공간의 성격이 동물을 만지고 볼거리로 소비하는 오락 공간이 아니라 생명 존중을 배우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와 보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시민들의 높아진 동물복지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해양동물보호구역 지정을 늘리고 해양동물들이 수족관의 삶을 마감하고 보다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해양동물 보호센터를 설립해 위기에 처한 해양동물들을 구조하고 국내에 부족한 해양포유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지정토론 |

토론자 -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대표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토론문 [토론 ③]

장 수 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대표)

1. 현재 수족관의 근본적 문제

전통적인 동물원 목적 중 하나는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하여 관람시키는 동시에 생물 종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대중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초기의 목적은 꾸준히 변화해왔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수족관은 이러한 여타의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가두어 키우면서 동물을 교육 및 오락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갖는다.

2.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고래류

수족관에 사육되는 모든 동물 중 고래는 뛰어난 지능과 감각을 지니고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감정표현력을 가진다. 게다가 많은 고래들이 서로 간에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무리를 구성하는 높은 사회성을 보이고, 소리를 이용해 활발히 소통한다. 또한 몸집이 크고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등 넓은 공간과 생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래는 그 어느 동물보다 사육환경에 부적합하며 사육하는 것 자체가 학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래의 사육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국내에서도 같은 이유로 돌고래가 방류되기도 하였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사육해서는 안 될 동물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래류일 것이다.

벨루가를 포함한 소형 고래류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연구로 인하여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이때의 문화란 개체나 세대를 넘어 특정한 행동

이나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러한 문화를 그룹 내에서 배우고 익히며 여러 시간 동안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먹이가 나오는 시기나 장소, 먹이 포획 방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독특한 특징 등이 이에 포함되며 각 개체군이나 그룹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고래를 연구하는 생태학자와 보전생물학자들은 고래류 보전에 있어 개체 하나하나의 생존 이상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족관에서 고래의 문화는 사육의 조건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수족관에서 번식된 개체들은 어떤 문화적 습득도 얻지 못한다. 때로 트레이너가 내는 소리를 따라하는 등의 경우도 발견되지만, 이것은 고래류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문화가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 수족관 내에서 보이는 행동들이나 인위적 학습을 통한 행위는 개체들을 야생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고래 타기를 비롯한 수족관 프로그램의 문제

(1) 윤리적 가치

고래를 타는 것이 해당 동물에게 약간이라도 어떤 이득을 준다는 입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어떤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서도 사람이 동물을 타는 것을 행동풍부화라 하지 않는다. 행동풍부화는 동물이 야생의 서식지에서 누렸을 다양한 자극을 최대한 재현시킴으로써 스트레스와 정형행동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등에 올라타거나 주둥이를 딛고 서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고래류의 자연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돈을 많이 낸 고객을 태우는 명백한 상업적 행위를 행동풍부화와 같이 동물을 위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래를 타는 것은 그것이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행동풍부화가 아님은 물론이며 오히려 정반대에 해당되는, 매우 침해적인 행위이다.

고래류를 사육한다면 최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이 고래의 등에 타는 행위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반대 극단에 해당된다. 동물은 사람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말이나 코끼리 같이 타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되는 종에서도 현장 뒤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훈련과 고통의 이유로 수많은 곳에서 동물 타기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그러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동물 종에 탄다는 것은 그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2) 보전적 · 교육적 가치

고래를 위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풍부화 프로그램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고래류의 사육 또는 고래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윤리적, 교육적으로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획 · 사육의 조건이 자연보다 더 낮거나 나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이러한 조건을 비슷하게라도 조성해 주는 것은 해양포유류 사육에 있어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족관은 종종 수족관의 환경이 자연에 비하여 낫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통해 자연은 동물에게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원래 생물이 살던 서식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수족관을 대안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대중에게 보전에 있어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돌고래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귀엽고, 똑똑한 동물로 묘사되고, 수족관에서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적 필요에 따라 의인화되고 재가공된 이미지로 실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과는 차이가 있다. 시설을 찾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에 감정적이거나 호기심 충족의 차원에서 반응할 수 있다. 또한 퍼포먼스가 사람으로 하여금 퍼포먼스를 하는 동물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게끔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실제 동물과의 것이 아니라 시설에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개념일 뿐이다. 많은 프로그램이 ‘생태설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래류와, 그들의 생태를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는 것은 신체적 능력에 불과하며, 보여주는 것은 포장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생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4. 홍보의 수단으로 전략한 보전과 연구

수족관에서 수족관 내 사육 개체의 관리와 연구를 통해 보전에 기여하거나 해양쓰레기 줍기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흔한 마케팅 수단이다. 그러나 과연 교육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상관없는 수준에 다를 바 없다.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개체군 지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야생에서 수가 급감하고 있는 동물을 사육해 키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돌고래를 사육하는 수족관들은 결과적으로 서식지에서 해당 고래종의 생존에 위협을 미치거나 개체수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대부분의 수족관은 야생에서 해양포유류를 포획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득하이해 포획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포획 과정에서 포획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포획되지 않은 개체에 대한 영향 조사 등 또한 파악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수족관에서 번식을 시도한다면 이 또한 번식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적절한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하는지, 번식 개체의 재도입이 가능한지, 이렇게 번식된 개체들이 야생의 개체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은 사육 개체의 번식은 단순히 전시·공연 개체의 증가와 다르지 않다. 일부 기관이 멸종위기에 속한 동물의 번식을 통해 고갈된 개체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숫자로도, 비용으로도 매우 극소수다.

결론

벨루가를 비롯한 고래류를 타는 행위가 벌어지는 이상, 이 종을 위해 어떤 환경이 조성되든, 어떤 생태 설명을 하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래를 사람이 얼마든지 밟고 올라타도 무방한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관점으로 매우 비교육적이고 심지어는 반교육적이기까지 한 행위이다. ‘생태 설명회’는 생태에 대한 정보도, 생태에 대한 가치도 반영하지 못한다. 수족관 고래류의 사육에 있어 기존 환경 및 동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고, 교육적으로도 보전적으로도 가치를 지니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연구와 예산을 야생 개체군 보전과 사육 개체 관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

토론자 -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토론편 (토론편 ④)

손 호 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

동물 복지는 동물들이 처한 환경, 인간의 접근성 차이 등에 따라 사육 동물과 야생 동물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후자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다.

사육 동물의 복지를 평가할 때 동물의 행동이나 건강 상태 등(animal-based)을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육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자원(resource-based)을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는 직접, 후자는 간접 지표인데, 후자가 관리와 기준 설정이 용이하여 제도 등에 보다 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동물에 대한 직접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동물 대상 평가는 크게 ‘건강(health-based),’ ‘자연환경 유사성(natural-living),’ ‘감정(feelings-based)’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관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감정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연환경 유사성은 자원 투입 평가와 비슷한 점이 많고, 건강 상태는 질병, 상해 평가 등을 통해 그나마 객관적, 계량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감정과 관련된 복지 평가는 객관화, 계량화가 무척 어렵고 주관성을 띠기 쉽다. ‘생리(physiology),’ ‘행동(behavior),’ ‘인지(cognition)’ 세 가지를 통합한 전체적(holistic) 감정 평가를 하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훈련된 연구자가 오랜 시간 연구 대상 동물과 소통하면서 관찰한 영장류의 경우 행동, 인지 등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계량화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돌고래의 경우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로 영장류 등에 비해 연구 성과가 적어서, 생리, 행동, 인지를 활용한 복지 상태 평가를 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해양포유 동물의 복지에 관한 연구는 ‘사육 큰돌고래(*Tursiops truncatus*)’를 대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일회성의 행동, 생리 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장류에 관한 연구처럼 전체 맥락에서 연구 대상 동물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돌고래와 수영(*swim with dolphin*)’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한 다수의 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는데, 평가 지표나 방법이 돌고래들의 복지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돌고래를 돌보는 사람들(*caretakers*)과의 친밀한 관계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서 이런 관계(*human-animal relationship*)는 복지 평가 지표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돌고래가 계속해서 풀을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자극이 낮은 환경을 반영하지만, 진정한 반복(*repetitive*), 무변화(*invariant*), 무기능(*without function*) 행동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사육 돌고래 복지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엄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동물 관리 제도에 반영하기는 현재로서는 무척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과학적 기준은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육 돌고래들의 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주) 이 글은 「Clegg, I. L., & Delfour, F. (2018). Can We Assess Marine Mammal Welfare in Captivity and in the Wild? Considering the Example of Bottlenose Dolphins. *Aquatic Mammals*, 44(2).」의 내용을 요약하고 토론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정토론 |

토론자 -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돌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동물복지 강화 방안 (토론 ⑤)

장 성 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 논의 배경

- 거제씨월드 사태 이후 청와대 청원 개제 및 동물단체의 '동물학대 금지 규탄 성명서' 발표(~6.30) 등 고래류 체험 문제 논란 지속

□ 그간 대응 현황

- (전시용 고래 수입 금지) 수입 용도, 사육 환경 등의 사전 검토를 하고 있으며, '17.1월 이후 현재까지 '전시용' 고래 수입 불허(연구·교육 목적 등에 한해 허가)
- (비인도적 방법으로 포획된 고래 수입 금지) 고통을 주는 도구 사용 등으로 포획한 CITES 종의 수입 금지('18.3,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 *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물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
- (관리실태점검) 거제씨월드 고래류(CITES) 관리실태 점검(낙동강유역환경청, 6.22)

□ 문제점

- 그간 우리나라의 고래류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 체험행위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제7조)상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음 △ '17.1월 이후 CITES 과학당국의 검토의견에 따라 전시용 고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 미흡

<최근 10년간 수족관 돌고래 보유 및 폐사 현황('20.8월)>

[단위 : 마리수]

지역	서울	울산	경남 거제		전남 여수	제주			
업체명	롯데아쿠아리움	장생포고래박물관	거제 씨월드		아쿠아플라넷	마린파크	아쿠아플라넷	퍼시픽랜드	
종명	흰돌고래	큰돌고래	큰돌고래	흰돌고래	흰고래	큰돌고래	큰돌고래	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개체수	1	4	7	4	2	4	4	3	1
폐사	2	5	9	-	1	4	3	4	-

※ 출처 :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 고래류(수입 또는 인공증식 신고된 CITES) 점검 결과

□ 향후 개선 방향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검토·추진(해수부와 공동 개정안 마련)
 - 동물복지 조문* 및 복지 저해시 과태료 또는 벌칙 신설 등
 - * 끌어안기, 등에 올라 타기 등 금지, 소음, 조명·온도, 은신처 등 사육환경 조성·관리 의무 등
- 전시용 고래 수입 제한 근거 마련 : 「야생생물법」 시행령(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기준) 개정 검토

지정토론 |

토론자 -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동물복지 개선과 체계적 수족관 관리 [토론 ⑥]

이 재 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 WHY & WHAT

-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요구 증가(예. 체험 vs 학대, 전시·관람 vs 자연 방류)
- 수족관 등록·관리·운영 개선 및 체계화
- 수족관의 역할 및 기능 재검토 및 강화 (전시·관람·교육, 서식지외 보전기관, 구조·치료기관 등)

□ WHO

- 정부(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업계(수족관), 시민단체, 일반시민

□ HOW & WHEN

- 제1차('21~'25)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안) / 법률 개정

5대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12개)
1.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 설립 기준 강화 ○ 동물 보유·관리 체계 정비 ○ 수족관 생물 질병 관리
2. 공중안전 및 보건환경 조성	○ 관람객 위생·안전 관리 ○ 근무자 안전 관리 및 건강 보호
3.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확대	○ 해양생물 조사·연구 ○ 서식지외 보전 기능 강화
4. 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국내·외 협력 ○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5. 수족관 관리·지원체계 개선	○ 권역별 거점 수족관 구축·운영 ○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수족관 관리 역량 강화

- 정부·수족관·시민단체 참여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논의 및 협의 필요 (전시·체험방식, 자연방류 등)
 - 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정부 지원
 - 전시·관람·체험·교육 방식 전환
 - 쉼터(Sanctuary) 조성 및 자연방류 (개체 선별, 적응훈련 등)

지정토론 |

토론자 - 이종하
경남도청 해양수산과장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토론문 [토론 ⑦]

이 종 하
(경남도청 해양수산과장)

- 경상남도 역할(수족관 등록·폐지, 지도·점검 등)
 - 거제씨월드*는 거제시와 BTO(민간사업자가 시설하고 직접운영)방식으로 2014년 7월 개장한 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라 2018년 6월 우리도에 수족관 등록
 - * 거제씨월드 : 립치용(싱가포르 국적)이 대표이며, 거제시로부터 토지를 제공 받고 30년간 운영 한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
 - 거제씨월드는 매년 2월말까지 수족관 운영·관리, 연간 개방일수 등 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우리도는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함
(돌고래 11마리 보유 : 흰돌고래 4, 큰돌고래 7)
- 해양동물단체의 거제씨월드 돌고래 학대(체험프로그램 운영) 주장 관련
 - 수족관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20 : 3회)
 - *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수표면 84㎡이상, 수심 3.5m 이상) 충족함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동물학대 여부 자문 요청('20. 7월)
 - * 답변 : 체험프로그램의 학대 및 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 기준 미비 함⇒ 체험프로그램이 관련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국민정서 및 동물 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 검토
- 수족관 시설폐쇄 및 돌고래 방류 관련
 - 서울대공원에서는 국내에서 불법 포획 한 돌고래(7마리)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자연 방류한 사례는 있으나, 수입 돌고래 방류 시 업체의 손실 보상 요구 및 주서식지 방류(적응 등)까지의 고비용 소요로 곤란.

